



이기도 해서 정확한 분포와 실태 해명이 시급했는데 일본 환경청과 국립환경연구소에 의해 자연을 보존하고 인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컴퓨터 도난 방지 프로그램

컴퓨터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컴퓨터의 도난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 도난을 당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전산기 도난 자동 통보 프로그램이 등장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의 한 회사가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 주면 일주일에 한번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의 관리 센터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도록 되어 있다. 센터에서는 걸려온 전화 번호와 소유주의 전화번호를 비교하게 되고 만약 전화번호가 다르면 전화 상대 식별 서비스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게 되고 도난당한 컴퓨터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 등의 통신망이 전화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용한 것으로 도난당한 컴퓨터라 하더라도 어디에 가든 전화 회선이 연결된다고 가정된 상태에서 개발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작동되어 일주일에 한번 센터로 전화를 할 때에도 전화하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이 서비스가 활동할 수 없도록 조작해 봐도 경찰의 허가를 얻으면 역탐지를 할 수 있어서 반듯이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 바이러스와 같이 하드 디스크 속에 숨겨져 있어서 디스크의 내용을 지워버려도

이 프로그램은 지워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한번 주인이면 영원한 주인'이라는 광고 문구가 이 프로그램에 어울리는 광고인 것 같다.

다기능 복사기

가전제품에는 복합적인 기능이 담긴 제품이 많이 나와 있다. 복사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문서를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복사해서 쓰도록 해주는 복사기까지 개발되어 현재 고가에 팔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문서를 복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사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복사물을 받아볼 수 있는 최첨단 다기능 복사기가 개발되어 복사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다기능 복사기를 개발한 회사는 일본의 복사기 제조업체중 한 곳으로서 디지털 복사기에 전자 파일 기능이 딸린 복합기를 먼저 기본으로 개발했는데 이것은 복사기 그 자체를 컴퓨터화 하는 최초의 융합 제품이라고 한다. 이 복사기에 내장되어 있는 1기가 바이트자리 대용량 디스크에는 A4 용지 9천장 분의 문서라는 어마어마한 기억용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쉽게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고 한다.

다기능 복사기의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팩스가 내장되어 있어서 필요한 곳에 바로 송신할 수도 있고 보관해 놓은 문서의 목록을 가지고 있으면 복사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팩스를 이용하여 목록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동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한다. <유태수記>